



01. 대심방

2022년 ‘Together 대심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동안 ‘Together 대심방’을 위해 기도와 수고로 함께 하신 교구총무단, 구역장 및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02. 예배

6.26(주일) 주일찬양예배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사역 희년대회’로 드립니다. 행사 당일(6.26)은 오후 6:30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합니다. 또한 행사 당일(6.26)은 5부 예배부터 모든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대중교통 및 명일여고 주차장 이용).

03. 창립기념주일

지난 42년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주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② 날짜: 7.10(주일)
- ③ 주요행사
  - 창립주일예배: 7.10(주일)
  - 창립기념 컨퍼런스: 7.2(토)
  - 42주년기념 선교 특별새벽집회: 7.5(화) - 9(토)
  - 선교사역전시회: 7.2(토) - 12(화)

04. 유아세례식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6.19(오늘) 주일낮예배 4부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선교

2022년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선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각 국가별로 비전트립 및 다양한 사역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 국가 / 기간: 이스라엘 / 6.27(월) ~ 7.8(금), 에티오피아 / 6.27(월) ~ 7.8(금) 캄보디아 / 7.2(토) - 9(토)
- 문의: 청년대학부(☎ 02-6930-9493)

06. 국내선교부 통일준비위원회

국내선교부 통일준비위원회에서 ‘6.25 한국전쟁 72주년 복음통일주간’을 맞아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 기간 / 장소: 6.19(오늘) - 26(주일) /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 행사내용: 통일기도문 쓰기 및 전시회

07. 알림

명성복지재단(가나안의집)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접수처: 아동센터 이메일(msc7151@naver.com)
- 접수기한: 6.23(목)까지 · 문의: ☎ 02-474-6940

동물들은 천적을 피하려고 속임수를 쓰거나 적과 싸울 때 자기를 부풀려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진화 생물학자는 인간이 동물보다 속임수를 더 잘 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하고 예쁘고 부하고 똑똑하게 보이려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임수를 쓰거나 스스로를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이 더해질 때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다음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골수를 쫓개고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고향이나 비슷한 취미 등 참 단순한 이유로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를 버리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믿지 못했지만, 미디안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드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분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궐 같을 때나 광야 같을 때나 하나님을 시시로 신뢰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목사 권삼열 김남수 김다림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요한 김우중 김윤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경민 신동신 신충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탁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혜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이승갑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경환 김동욱 김믿음 박경애 박고운 박근우 박보하 박우진 신재희 오대용 이경환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은세 이재민 이주현 임기도 정구현 편경호

교육전도사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문태은 박경민 박재현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성현 이준민 이준식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박종근(중국)

오직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금주 신생아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2년 1월 - 현재)
2명	총 76명

